

## <토론 회의록 요약문>

### 정희성 사무처장님

- 토론에 3가지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되어야 할 것임

① 국가 간의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은 차이가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

② 비전과 기능

③ 연구소의 조직어 어떤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지

### 조영탁교수님

- 연구소의 의미를 2가지의 입장에서 봄

① 완화측면 : 전문적인 기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, CO2 발생량의 85%가 에너지이고 에너지 산업이 전력임. -> 충남에는 화력발전이 많이 몰려 있고 전력 다소비로 떠오르는 영상 IT가 증가하는 추세임.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기후 완화의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

② 적응측면 : 충남은 적응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농업은 기후 적응에 가능 중요함. 또 수산을 안고 있고 해양생태계 변화, 농업 수산물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- 연구소 이름에 환경이 들어가는데 환경의 측면에서 3가지 제안

①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: 외국에서는 대기오염 경로추적을 함

② 축산 분뇨문제 :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 측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음

③ 화력과 관련된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: 기후환경연구소가 열리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임

- 비전에 관한 의견

①가능한 지역 단위에서의 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주었으면 함

② 출발연은 연구정책 기능, 연구소는 자료조사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양자의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시너지 효과르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### 김선태교수님

-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연구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: 연구조직은 이미 국가나 지방에 많음

- 기후환경연구소라는 이름에 관한 의견 : 기후와 기후변화는 다른 개념임 - 처음의 취지가 달라질 우려가 있고 물환경은 기후변화에 통합되는 추세임, 기후환경보다는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성격을 규정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함

- 기타큐슈 견학시 연구조직이 아닌 실증조직이었음 : 이름은 어떻든 간에 성격은

연구를 슬증하는 또는 테스트하는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

- 내용에 관한 의견 : 충남에는 산업단지, 발전소, 농촌, 해안, 산림 등 기후변화를 기회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함,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엄청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

- 전략적 차원에서의 의견 : 화력발전 뿐만 아니라 송전탑에 의한 환경갈등 등 국가 차원에서 지역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봄, 국가가 기금을 만들고 기금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위해하는 곳에서 받아야함. -> 지역 차원에서 센터나 활동을 하기에 조금의 수익측면에서 고민을 줄이고자 고민

### 장동호교수님

- 연구소의 제목(이름)과 목적, 내용에 괴리감 -> 작명에 조금더 고민을 해야할 듯
- 역할에 대한 부분 : 총발연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
- 연구소 이름과 관련해서 언급 : 서해안이란 단어에 대한 것 -> 서해안만 하자는 건지 주로 해안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건지 분명해야 함, 서해안이라고 하면 해안과 연안에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 들게 됨
- 분야별 평가에 대한 측면에서 연구소는 취약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고, 총발연은 적응이나 대응방안의 논리 쪽으로 나가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

### 남정호박사님

- 2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음
  - ① 연구소 명칭에 대해서 형용모순이 되면 안되지 않나 생각이 됨 : 서해안과 기후, 환경이란 세가지 단어,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전이란 용어에 대한 생각, 서해안이라는 용어에 대한 생각 등에서 형용모순이 느껴짐
  - ② 연구소라는 명칭에 의한 연구기증이 주가 되는 것처럼 나타남 : 연구기능으로 갈 것인가 수탁기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
- 국제와 국내 운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
  - ① 국제운영 :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던 것보다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게 되고 있음
  - ② 국내운영 : 태풍의 경로 변화라든지 침식관리 구역제도라든지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
- 연구소의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함 : 대내, 대외관계를 따져보고 미래 전략을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음
- 다른 지역차원에서 기후변화연구소가 똑같은 형태로 복제품은 필요 없음 -> 스타 프로젝트를 추려서 중점적으로 집중육성한다면 미래에 포지션도 달라질 것 이라고 생각함

#### 정연양 정책연구위원님

- 연구소의 기능과 비전에 관한 의견 : 총발연은 정책연구, 기후환경연구소는 총발연의 정책보조창고로써의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책자료라든가 소관된 일을 하는 곳
-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할 일
  - ① 기후변화 과학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, 대응
    - 기후변화 과학 측면 예측과 감시는 국가의 일, 지역적인 기후에 대한 국지적 모니터링이 필요함, 하지만 많은 경비 등이 들게 됨 ->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자료의 취합, 보안을 통한 모니터링, 정보수집 등으로 총발연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
    - 기후변화 적응 대응 측면 : 서해안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한계성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.. : 충남은 다양한 기후환경을 가진 지역임,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특성의 연구결과를 제공한느 것이 하나의 기능일 것임
    -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 :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지역의 자료창고 역할
    - 충남 지역의 다양한 기후연구를 융합할 수 있는 연구 총괄 기관

#### 한찬동 팀장님

- 조례사항으로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라는 명칭이 고정되어 있으며,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구.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계정할 수 있음. 명칭에 대하여 더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됨

#### 정연양 정책연구위원님

- 포괄적인 의미로써 서해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정확한 논리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임

#### 한찬동 팀장님

- 서해안은 서해안 바다 연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 수계 등을 포함한 서해안의 큰 범위를 넓게 생각한 것임

#### 이인희 연구위원

-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재원으로 구상하는 많은 업무들이 가능할지 의문임. 충남발전연구원과 업무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함

#### 송영일 센터장님

-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업무가 과학분야, 감축분야, 적응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범위를 얼마나 포괄할 것인가 궁금함
-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로드맵을 만들어서 앞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준비가

있어야 함

- 먼저 할 수 있는 사항

- ① 지자체, 특히 읍면동의 자료부족 → 기초자료 확보 업무 필요

- ② 환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

- 충남발전연구원의 기존 기후변화 관련 조직과의 업무 중복문제를 피해야 하는데, KEI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관계처럼 운영이 된다면 중복문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#### 한찬동 팀장님

- 별도의 조직은 아니고 부설 조직임

#### 정희성 이사장님

- 충남발전연구원의 센터가 일반의 센터 개념과는 다른 특별한 운영이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음. 그것과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 판단됨

#### 한찬동 팀장님

- 구체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무적으로 고민해 볼 상황임

- 1차년도에는 4억 5천, 다음해부터는 3억 5천정도이고, 물환경센터에 기존에 나오던 출현금이 2억정도이며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중임

- 첫 해의 인원은 15명 정도로 생각하고, 연구소장도 처음에는 겸직하는 형태,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형태,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자금으로 설립하려고 함

#### 박주택 사무처장님

-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는 연구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충남발전연구원과의 역할분담, 차별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하며, 연구소의 방향성 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함

- “한국기후..연구소”도 강원발전연구원과 기후변화 연구에 관한 중복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응에 관한 연구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하고, 지자체 적응대책, 세부시행계획, 완화 부분에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은 “한국기후..”에서 하는 등 지금은 차별성을 가지게 됨

#### 정희성 이사장님

-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, 충남발전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서로 함께 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, 갈등관계를 가지고 마이너스 관계가 되느냐는 중요한 과제임

#### **김선태교수님**

- 연구소의 이름이나 여러 가지에서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지만 여구기능이 되어서는 안됨, 조직이 주민의 어떤 이익을 염두해 두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

#### **송영일센터장님**

- 연구만 해서는 안 되며, 정책을 적용하는데 힘써야함. 기후환경연구소라는 명칭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

#### **장동호교수님**

- 기존 국가단위의 자료로는 연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기후환경연구소가 반드시 만들어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

#### **남정호 박사님**

- 현재 충남발전연구원과 업무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, 업무 규명을 위하여 포지션 맵을 작성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

#### **정희성 이사장님**

- 물 환경은 기후변화 적응이고, 대기오염문제나 화력발전소 등은 완화와 관련된 문제임 -> 적응과 완화 관계를 포괄하는 용어가 맞을 듯함.
- 기후변화 문제가 정책에 반영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함. 하지만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교육, 정보 취합, 공무원 교육 등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함.
- 독립적인 조직으로 총발연에 쥘서 이것을 키워서 총발연을 키운다는 식의 비전이 더 안정적인 성장, 정책적으로 맞는 것 같음.

#### **정연양 정책연구위원**

- 중앙정부의 계획들을 평가하고, 증빙할 수 있는 지역 모니터링이 필요함. 기존의 각 연구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의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
#### **한찬동 팀장님**

- 에너지 관련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세를 각 기관 협의를 통하여 기후환경연구소, 기후변화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

#### **정희성 이사장님**

- 안정적인 재원이 있다면, 조직이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
- 수계관리기금을 금강수계나 적응대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임

**한찬동 팀장님**

- 도비로 물환경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. 수계기금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환경센터를 포함하고 있음

**정회성 이사장님**

- 기후환경센터에 물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등 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

**오혜정 박사님**

- 센터에 대해 비전과 역할이 먼저 그려져야 그 후 교정들이 가능할 것임